

제 51강 A

마지막 설교, 송별기도

(요한복음 연구 II-1)

■ 성경본문 요한복음 13:1-17:26 ■

프렐류드(Prelude)



요한복음에 나타난 지역

지난 50강, 요한복음의 전반부(요 1-12장)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 이적을 통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별설교 및 기도(요 13-17장)와 수난 및 부활(18-21장)을 주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별설교(요 13-16장)는 옛날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을 설교한 모세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신명기). 예수께서도 자신이 떠난 후

제자들이 이 세상 악의 세력과 맞서서 살아가야 할 길을 권면하시고, 성령 보혜

사께서 오셔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을 도우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고별설교를 마치신 예수는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세상에 남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는 ‘예수 이후 시대’에도 제자들이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능력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의 고별설교의 주제들

‘내 아버지의 집’	(요 14장)
포도나무와 가지	(요 15:1-16:4)
여러 약속들	(요 16:5-33)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구조

예수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요 17:1-5)
제자들의 거룩을 위하여	(요 17:6-19)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요 17:20-26)

I. 주요 내용

1.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요한복음 13:1-20)
2.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요한복음 13:34-15:17)
3. 성령의 약속(요한복음 14:15-15:26)
4.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요한복음 17:1-26)

II. 시대적 배경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수행하시는 때는 주후 30년경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깊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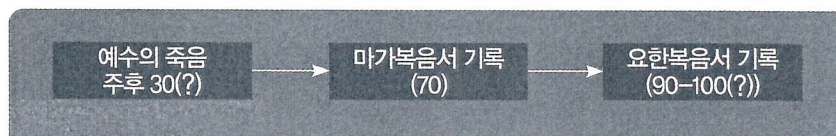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는 주후 90년에서 120년 사이였습니다. 예수 이후 60-70

년이 지난 때에도 예수와 공동체, 요한공동체는 유대주의의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로마 제국의 압제까지 겹쳐 요한공동체는 이중적인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두 시대의 핍박과 갈등을 동시에 대적으로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을 구원하는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해 예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공생애 사역은 주로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의 고별설교는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성령이 오셔서 이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예수의 사역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성령의 약속을 기록함으로써 예수 이후에도 성령이 주시는 깊은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의 '소명'(召命)과 '제자도 직'(弟子道職)을 높이려 하였습니다.

〈연대표〉



III. 말씀과 해석

1.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요한복음 13:1-20)

때가 차서 예수께서는 영광을 얻으사(요 13:31)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입니다(요 13:1). 이때는 마귀의 꼬임을 받은 가롯 유다에 의해(요 13:2, 27) 촉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일이었습니다(요 13:18).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는 때에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요 13:5). '세족'(洗足)으로 불리는 이 행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자기 겸허의 표현이었으며, 하나님나라의 표상인 겸손과 섬김, 희생과 봉사의 집약이

었습니다.

2.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요한복음 13:34-15:17)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거대한 계명이 아니라 극히 소박하고 단순한 계명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15:12)였습니다.

구약의 십계명과 공관복음이 강조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두 계명(막 12:29-31, 마 22:37-39, 눅 10:27)이었으나 요한복음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의 짧은 한 말씀으로 요약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비로소 구현된다는 의미입니다(요 14:21).

특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고 말씀하신 데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3. 성령의 약속(요한복음 14:15-15:26)

요한복음에는 성령이 여러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요 3:, 요 4:24, 6:63, 7:37-39).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설교는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혜사’입니다.(요 14:16, 26, 15:26, 16:7, 13)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는 믿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요 14:26),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요 14:26),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요 15:26),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요 16:7-11).

또다른 하나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요 14:17, 15:26, 16:13).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며, 모든 지식까지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요 16:12, 13).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 사이를 이어주시고 그 속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인도자이시며, 동행자이십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요한복음 17:1-26)

수난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마치신 예수께서는 세상에 남아 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요 17:11).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는(히 9:11-12)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 17:1-5).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곧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보전해 주시고(요 17:11, 15),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요 17:17).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요 17:14, 16).

마지막으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요 17:11, 21-23)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됨 같이 따르는 자들도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IV. 성찰과 나눔

1. 다른 복음서에 비해 요한복음은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많은 부분을 제자 양육과 공동체 세움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제자들을 예수 이후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의 증언자로 이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발 씻기심’, ‘서로 사랑할 것의 당부’, ‘제사장적 중보기도’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는 전략적 사역이었습니다.

3.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 이후의 사역을 성령 보혜사의 사역으로 귀결합니다. 신학적 표현으로는 예수의 ‘부재’(不在-absence) 속에 예수의 ‘현존’(現存-presence)이 성령이십니다. 예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셔서 이 세상 안에 있는 제자공동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제 51 강 B

부활의 영광(요한복음 연구 II-2)

■ 성경본문 요한복음 18:1-21:25 ■

프렐류드(Prelude)



요한복음에 나타난 지역

요한복음이 기록된 주후 90-120년은 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교의 압제가 극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거기에 ‘영지주의’(Gnosticism)라는 이단이 가세하여 요한공동체를 큰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노시스파는 희랍 이원론을 근거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육체가 아니라 예수가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설파하면서 교회 안을 파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은 십자가 상의 예수의 죽음은 온전한 인간 예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몸과 영혼의 전인적인 죽음이고,

다시 사신 부활은 육과 영의 부활이었음을 반교해야 했습니다.

I. 주요 내용

1.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요한복음 18:1-19:16)
2. 육신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요한복음 19:17-42)
3. 부활의 영광(요한복음 20:1-2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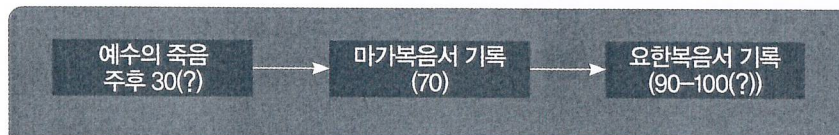
II. 시대적 배경

1세기 말경 유대교 지도자들은 많은 유대인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것을 막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로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교를 억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회당에서 출교시켰습니다. 주후 90년경 유대교 랍비 가말리엘 2세는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인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지만, 타락한 육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도전 앞에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고,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증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연대표〉



III. 말씀과 해석

1.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요한복음 18:1-19:16)

예수의 사역은 초기부터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심한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가 위협받자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논쟁, 살인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체포하고 살인으로 막을 내렸습니다(요 5:18, 37, 45, 7:1, 19, 8:22-24, 37-59, 19:7) 유대인이 유대인이신 예수를 살인한 것입니다.

1. 제자 가롯 유다 2. 그가 데리고 온 사람들 3.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에게 체포(요 18:3) 4.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가(요 18:13) 5. 다시 가야바에게로 끌려오고(요 18:24) 6. 마지막에는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따라 처형되었습니다(요 18:30).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방면하려 했으나 오히려 유대 민중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요 19:15)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민족혼을 팔고 하나 남까지 모독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에게 굴복하고 예수를 처형했습니다(요 19:16).

2. 육신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요한복음 19:17-42)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교권자들, 유대인 무리, 로마 당국자들의 합작에 의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마지막 운명인 죽음을 거쳐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인간 예수, 그는 손수 십자가를 지셨고(요 19:17), 십자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육신의 모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시고(요 19:26, 27)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고(요 19:28) 로마 병사들의 창으로 찔렸을 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고(요 19:33-34),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의 허락을 얻어 예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안장한(요 19:38-42) 이 긴 십자가의 죽음은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환상’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그가 행하신 지상 사역 모두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역사’, 인간의 삶의 ‘실존’(實存)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

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 죽음의 모형이었습니다.

3. 부활의 영광(요한복음 20:1-21:25)

그러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 아침을 여는 길이었습니다. 새 아침의 시작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베드로와 제자의 ‘빈 무덤’ 확인(요 20:1-9),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요 20:18) 문을 잠그고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는 죽음을 딛고 다시 사신 주님이었습니다. 평강을 축복하신 예수(요 20:19, 26), 제자들과 함께 먹은 생선(요 21:1, 12, 13) 기사는 죽임을 당하신 예수는 사망 권세를 부수고 육신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예수는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소명을 부여하셨습니다(요 21:17). 예수 사랑은 예수의 양을 먹이는 소명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자공동체,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 땅에 전하는 복음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령 보혜사가 인도하시는 새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IV. 성찰과 나눔

1. 우리는 지난 42강에서 오늘 51강까지 무려 10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생애,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 4 복음서에 집중하였습니다.

2. 복음서마다 조금씩은 다른 관점과 서술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 죽으심과 부활을 묘사하지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주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증언에는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완성이시고 신약의 시작이셨습니다.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대망이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따르는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창조-알파)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되는(요한계시록-오메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증거였습니다.

4.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를 명하신 예수의 말씀(요 21:17)은 이 땅 모든 교회의 존재(예수 사랑)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는 사역(내 양을 먹이라)의 근거였습니다.